



2023 대림절 교육자료
동화 및 설교기획안



사랑 팬시점



성탄절을 기다리며 사랑팬시점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
그리고 함께 진행할 대림절 설교 기획안을 제공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1화 버꾸기시계

2화 마구간오르골

3화 성탄 초

4화 초코케이크

작가 류 성 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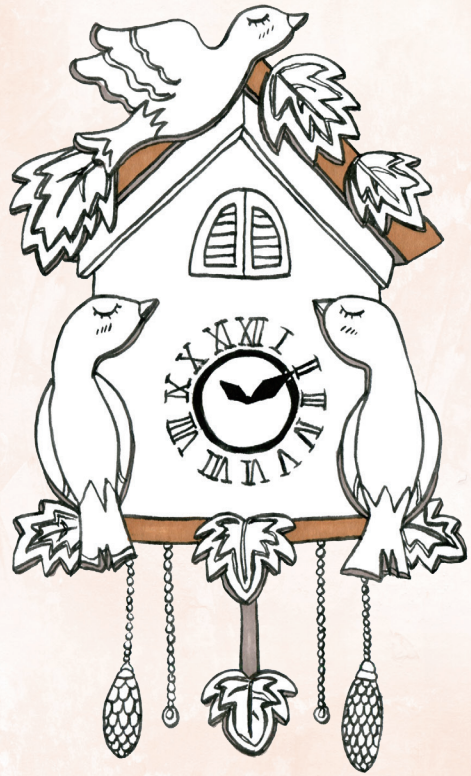
- 나무십자가교회 담임목사
- 〈카페, 피노〉 운영자
- 루터대 신학과 /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여름성경학교 교재 집필위원
- 제2회 우리교육 어린이책 작가상, 장편동화 〈너나들이 마을〉
- 2011년~2013년 〈신앙과 교육〉 동화설교 연재
- 2019년~2020년 두란노 〈빛과 소금〉 칼럼 및 동화 연재

저서

- 장편동화 〈너나들이 마을〉 〈애루수 시대〉
- 동화설교집 〈고따개비마을의 비밀〉



버꾸기시계



사거리 선물가게 사랑팬시점에 올해도 변함없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한해 중 가장 붐빌 때이니만큼 아무리 맘씨 좋고 친절하 주인아줌마라도 하루 장사가 끝날 요맘때쯤엔 꽤 지치기 마련입니다. 한쪽 구석에 걸린 버꾸기 벽시계가 삐걱삐걱 퇴근 시간을 알리자 아줌마는 고개를 돌려 낡은 시곗바늘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낮에 들여놓은 색색전구 한 세트를 트리 위에 멋스럽게 걸쳐놓고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사거리는 반짝반짝 성탄 빛 물결이었지만 불 꺼진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삐걱...”

버꾸기시계 아저씨가 쉼소리처럼 칼칼한 목소리로 침묵을 깼습니다.

“손님들에게 선택받은 선물들은 계산대 위에 놓이는 짧은 순간만이라도 다른 선물들에게 눈인사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하네. 아직 선택받지 못한 다른 선물들 쓰린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말이야. 삐걱.”

진열장 맨 위에 있던 털장갑이 아래 칸 스노우볼에게 심드렁하게 속삭였습니다.

“또 시작이네. 쳇.”

“음... 저 아저씨는 아무래도 건전지 대신 심술보를 달고 있는 게 분명해.”

스노우볼도 나지막이 맞장구쳤습니다.



“듣는 시늉이라도 해 주자고. 이 가게에서 제일 오래 된 물건이니.”

뼈꾸기시계 아저씨의 연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 그리하여... 뼈꼭. 이 가게의 제일 어른으로서 나는 매년 거행하던 ‘멋쟁이 선물 콘테스트’를 올해는 하지 않기로 결심했네. 뼈꼭.”

갑자기 가게 안이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북치는 소년이 따졌습니다.

“말도 안돼요. 매년 이어져오던 이 가게만의 전통을 아저씨 마음대로 없애다니요. 저는 그 콘테스트를 일 년 내내 기다렸다고요.”

“맞아요.”

“없애지 말아요.”

“올해도 해요. 네?”

여기저기서 불멘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용, 조용! 뼈뼈꼭. 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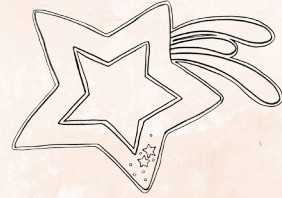
뼈꾸기시계 아저씨가 짜증스럽게 외쳤습니다. 마침 시각도 열시 십 분이라 두 시계바늘이 심술궂게 치켜뜬 눈썹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이 행사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뼈꼭. 자, 한번쯤 생각해 보라고. 진짜 인기 있는 선물들은 성탄절 여러 날 전에 다 선택 받아 팔려나가지 않나? 선택받지 못한 보잘 것 없는 녀석들만 남아서 멋쟁이를 뽑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말이네. 뼈꼭.”

썩썩대는 소리가 이따금 들려왔지만 단박에 대꾸하는 선물들은 없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었습니다. 조목조목 반박할 말들이 궁하면 유치하나마 쏘아붙이기라도 하려는 녀석들이 나타나는 법이니까요. 예를 들면, 털장갑 옆 야광별 스티커처럼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몇 년 쯤 먼지 먹으면서 목 빠지게 기다려도 아저씨를 사가는 손님이 아무도 없으니 괜한 심술이신 거잖아요. 톡 까놓고 요즘 세상에 누가 뼈꾸기시계를 사요? 그것도 크리스마스에.”

여기저기에서 피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광별 스티커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먹처럼 묵직한 한 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주인아줌마도 구닥다리 삐꾸기시계가 창피하니까 눈에 안 띄는 구석 벽에 걸어둔 게 분명하다고요.”

한 방 제대로 먹은 삐꾸기시계 아저씨 얼굴이 별꼴게 달아올랐습니다. 씹씹 숨도 거칠어져서 나올 때도 안 된 삐꾸기가 숨결을 따라 자꾸 얼굴을 내밀었다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 때.

파팻!

트리 위에 걸려있던, 오늘 새로 들어온 색색전구가 불을 켜졌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색색전구는 줄 한쪽 끝을 삐꾸기시계 아저씨 얼굴에 갖다 대고 다른 끝을 계산대 위 모니터에 연결했습니다. 모든 선물들 눈길이 모니터로 모아졌습니다. 거기 영상 하나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팬시점이 처음 문을 열던 날이었습니다. 주인아줌마 부부는 분주했지만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부부는 한쪽 벽에 삐꾸기시계를 걸고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화면은 바뀌어 봄비는 손님들 사이에서 정신없이 일하는 주인아줌마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뒤 삐꾸기시계가 삐꾸삐꾸 밤 열시를 알렸을 때 주인아저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줌마는 환하게 웃으며 불을 끄고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부부는 팔짱을 꼭 낀 채 가로등 불빛을 밟으며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삐꾸기시계가 열시를 알리면 여지없이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바쁘게 일하면서도 아줌마는 밤 열시 삐꾸기시계 울음소리만 내내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달, 부부는 삐꾸기시계 소리와 함께 집에 돌아갔습니다. 가로등보다 환하게 빛나는 웃음을 길 위에 흩뿌리며 매일 밤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다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큰 병에 걸린 아저씨가 그만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가게로 돌아온 아줌마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밤 열시 삐꾸기시계가 울면 아줌마도 울었습니다.

한 손님이 삐꾸기시계에 관심을 보이다 그냥 돌아간 날, 아줌마는 삐꾸기시계를 손님들 눈이 닿지 않는 구석에 옮겨 걸었습니다. 건전지도 제때 갈아주고 먼지가 앉지 않도록 자주 닦아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밤 열시 삐꾸기





시계가 울면 따라 우는 대신 그저 잔잔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인사 하듯 말입니다.

영상이 모두 끝나고 색색전구는 아무 말 없이 스프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팬시 점 안에 무언가 몽클함이 흘렀습니다. 아, 이런 분위기에도 역시 예외란 있습니다. 겉으 로는 까칠해도 속내는 말랑말랑한 녀석들은 의외로 깊이 감동하여 입을 열게 마련이니 까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야광별 스티커처럼 말입니다.

“저... 아저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언제부터 흘쩍였는지 코맹맹이 소리였습니다. 스노우볼도 말을 었었습니다.

“빠꾸기시계 아저씨는 손님들이 아니라 주인아줌마의 선택을 받은 거였네요. 매일 밤 아 줌마에게 다른 누구도 주지 못하는 선물이 되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의 뽀꾸뽀꾸 소리는...”

털장갑이 말을 이었습니다.

“뽀꾸뽀꾸 소리는... 뭐랄까... 사랑? 행복? 추억? 음... 위로? 뭐 그런 거였군요.”

빠꾸기시계 아저씨가 멧쩍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가? 뽀꾸. 나는 내가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하는 유행 지난 물건인 줄 알았는데 말 이네. 뽀꾸. 그저 보잘 것 없는...”

“보잘 것 없다니요. 아저씨야말로 크리스마스에 제일 어울리는 선물인걸요.”

야광별이 힘차게 외쳤습니다.

“맞아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멧져요. 아저씨.”

“아, 나 울 뽀했잖아. 흘쩍.”

다른 선물들도 다들 맞장구쳤습니다.

“아... 그렇다면!”

선물들 응원에 한껏 달뜬 빠꾸기시계 아저씨가 돌연 크게 외쳤습니다.

“이 감동과 기쁨을 뽀꾸뽀꾸 소리로 표현해보겠네. 자, 들어들 보라고.

뽀꾸, 뽀꾸, 뽀뽀꾸!”

빠꾸기시계 아저씨가 입 밖으로 연신 빠꾸기를 내보내자 당황한 스노우볼이 눈가



루까지 피워 올리며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정해진 시간도 아닌데 삐꾸기를 내보내시건 좀.... 아무리 기빠도 열시 이십삼분에 우는 삐꾸기시계가 어디 있어요?”

“상관없어. 이렇게 기쁜 걸? 나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삐어어어꼭! 삐꼭! 삐삐삐꾸꼭! 삐꼭....”

“아... 아저씨 제발요. 다들 잠잘 시간이라고요.”

선물들 만류에도 삐꾸기시계 아저씨는 무려 열시 삼십사 분까지 행복의 울음을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팬시점 선물 여러분! 이 가게의 제일 어른으로서 나는... ‘멋쟁이 선물 콘테스트’를 내일부터 거행하기로 마음 바꿨음을 알리는 바이네. 삐꼭.”

끝날 줄 모르던 삐꼭 소리에 지쳐가던 선물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올해도 잔치로구나!”

유리창에 붙어있던 나팔은 부 하고 노래했고 트리에 매달린 은종들은 팔랑팔랑 춤췄습니다. 색색전구도 빙글 웃으며 작은 빛을 깜박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사거리 선물가게 사랑팬시점에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한 크리스마스 시즌이 찾아올 모양입니다.





보잘 것 없지 않아요

본문말씀

■ 마태복음 2:6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주제가 담긴 동화

사랑팬시점 - 1화 빼꾸기시계

주 제

아기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 대신 유대 고을 중 가장 보잘 것 없이 여겨진 베들레헴, 그 중에서도 냄새 나는 마구간을 거룩한 탄생의 자리로 선택하셨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베들레헴 마구간은 더 이상 결코 보잘 것 없는 자리가 아니었다. 주목 받지 못하는 곳에 빛을 비추고 관심 밖으로 밀려난 이들에게 손을 내미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건대 이보다 더 어울리는 탄생이 있었을까! 외적인 조건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우리 눈에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본 동화와 설교의 의도이다.

줄 거 리

사거리 사랑팬시점은 매년 크리스마스 즈음 멋쟁이 선물 콘테스트를 진행하는 전통이 있다. 하지만 올해는 가게에서 가장 오래된 빼꾸기시계 아저씨의 반대로 콘테스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다. 선물들은 모두 그동안 어떤 손님들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빼꾸기시계 아저씨가 괜한 질투심에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발한다. 하지만 빼꾸기시계 아저씨와 가게 주인 부부에 얽힌 사연을 알게 된 후 갈등이 치유되고 콘테스트도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한다.

| 1단계 | 설교 본문에 대한 연구와 묵상

1. 본문의 내용과 문맥은 무엇인가?

본문은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예루살렘에 이른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가 물었고 이에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문의한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성경을 근거로 탄생 장소가 베들레헴일 것이라고 알려준다.

2. 미가 5:2

본문은 구약 미가 5: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의 인용이다.

3.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9km에 위치한다. 다윗과 연결점이 많아서 흔히 ‘다윗성’으로 불리기도 하는 지역으로 미가 5:2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부르거나 오늘 본문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스불론 지역에 동일한 지명의 성읍이 있어서 이와 구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 2단계 | 도입의 여러 가지 방법

* 사진을 통한 도입

베들레헴의 전경 사진과 예수님 탄생 시 마구간 그림을 보여주며 본문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다.

| 3단계 | 동화의 전개

동화를 읽는다.

| 4단계 | 동화와 설교의 연결 고리

동화 속 사랑팬시점에는 어린이들 마음을 설레게 할 많은 선물들이 등장한다. 그들 틈에서 구식 빼꾸기시계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캐릭터라 할 것이다. 크리스마스 기분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화려하고 예쁜 물건도 아니다. 그래서 빼꾸기시계는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나머지 까칠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특별한 기회에 공개된 그의 과거 사연은 그가 가게 주인부부의 추억의 물건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머금은 존재임을 알려준다. 외양적으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거의 담지 못한 구닥다리 아이টে이지만 그 무엇보다 아름답게 반짝이는 사랑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던 것이다.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유대 땅 베들레헴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다.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작은 존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면 보잘 것 없고 작은 존재야말로 주님 시선에서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이다. 예루살렘에 비해 작은 고을이었던 베들레헴, 그 중에서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세상의 시선으로 크고 작고를 평가하는 건 편견의 소치일 수 있다.

우리 어린이들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얹힌 베들레헴의 언급은 그런 어린이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한다. “너는 결코 보잘 것 없는 존재가 아니다!” 이 귀한 위로와 격려야말로 대림절에 꼭 전달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라 할 것이다.

마구간오르골



크리스마스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한 사랑팬시점에 묘한 기대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삐꾸기시계 아저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팬시점 선물 여러분! 삐꾸. 이 가게의 어른으로서 나는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멋쟁이 선물 콘테스트’가 바로 지금 시작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선언하는 바이네. 삐꾸.”

선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나팔은 뽀 팡파르를 울렸고 북치는 소년은 흥에 겨워 똥똥 북소리를 내었습니다.

“콘테스트는 앞으로 사흘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네. 삐꾸. 매일 밤 여러분의 추천을 받은 둘 혹은 셋의 선물들이 멋진 경쟁을 펼칠 것을 생각하니 설레는 마음 감출 수 없네. 마침 올해는 옛 기억을 보여준다는 색색전구까지 있으니 훨씬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겠지. 자, 여러분은 제일 먼저 누구를 추천할 텐가? 삐꾸.”

트리 맨 밑에서 대롱거리던 막대사탕이 기다렸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북치는 소년을 추천합니다. 멋진 제복에 어우러지는 절도 있는 북 연주가 끝내준답니다. 저랑 친하기도 하지만... 뭐 그래서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북치는 소년이 살짝 붉어진 얼굴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자기소개를 한 다음 통통



통 둥둥둥 멋진 북 연주 실력을 뽐냈습니다. 트리 위 색색전구가 북치는 소년과 계산대 위 모니터를 연결하자 공장에서 갓 조립되어 나오는 소년의 옛 모습이 떠올라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하트풍선 추천을 받은 루돌프 도자기 인형이었습니다. 루돌프 인형은 앞발로 장단을 맞추며 ‘루돌프 사슴 코’ 노래를 멋스럽게 불렀는데 흥에 겨운 선물들이 따라 부르는 바람에 종래는 멋진 합창이 되었습니다. 색색전구가 모니터에 도자기 인형이 빚어지는 과정을 띄우자 모든 선물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몰입했습니다. 뜨거운 온도를 견디며 도자기로 구워지는 장면에서는 감동한 나머지 눈물 흘리는 선물들까지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은 눈사람 봉제인형이 세 번째 후보를 추천하면서 부터였습니다.

“마구간 모양 오르골을 추천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 장면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저렇게 아름다운 성탄 캐럴 연주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 그, 그렇지만 마구간오르골은 오늘...”

누군가가 말을 하려다 황급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른 선물들도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삐꾸기시계 아저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은 마구간오르골이 후보로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는 모양이로군. 삐꾸.” 털장갑이 쭈뼛쭈뼛 고개를 주억거렸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다들 봤겠지만 마구간오르골은 어떤 아이가 사갔다가 불량품이라며 반품한 물건이니까요. 멧쟁이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삐꾸. 분명히 다른 선물의 추천을 받았고 현재는 우리 가게에 진열된 선물이니 후보 자격은 충분히 갖추었네. 일단 심사해보고 진짜 불량품이라고 생각되면 뽑지 않으면 될 일이지. 이보게. 오르골. 어디 자네 연주를 좀 들어볼 수 있겠나? 삐꾸.”

선물들 시선이 일제히 마구간오르골에게 모아졌습니다. 마구간오르골은 적잖이 곤란한 기색이었습니다.

“저... 그, 그제...”

눈사람 봉제인형이 눈치 없게 재촉했습니다.





“왜 그래? 빨리 네 연주 실력을 모두에게 보여주라고.”

마구간오르골은 할 수 없다는 듯 반쯤 열려있던 마구간 문을 힘써 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은 조금 닫히다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르골은 거듭 킁킁대며 힘을 써보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주할 수도 없는 이상한 소리만 조금 들리다 말 뿐이었습니다. 오르골은 가쁜 숨만 몰아실 따름이었습니다.

“역시 불량품이었어. 저런 상태로는 멋쟁이 선물로 어림도 없지.”

별무늬 목도리가 쓴 입맛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다른 선물들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마구간 오르골이 맥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마구간 문이 태엽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문을 닫을 때 태엽이 감기고 그 태엽이 풀리면서 문이 다시 열리게 되지요. 문이 천천히 열릴 때 음악이 연주되면서 마구간 속 아기 예수님이 모습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는데 어찌된 노릇인지 문이 닫히지를 않으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색색전구가 몸을 움직여 모니터와 오르골을 연결했습니다. 모니터에 두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탐스런 곱슬머리 소년이었고 다른 한 명은 주근깨가 귀여운 소녀였습니다. 둘은 크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끼리 삐걱대고 토라지는 일이야 특별할 게 없었지만 이 아이들 싸우는 모습은 어딘가 좀 달랐습니다. 수어(주: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들 사이에서 쓰이는 몸짓과 손짓에 의한 의사 전달 방법)를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아이 모두 말하지 못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찌푸린 얼굴로 서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곱슬머리 소년은 집에 돌아가서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아보였습니다. 한동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던 소년은 엄마 손을 잡아끌고 사랑팬시점을 찾았습니다. 한참을 살피던 소년이 집어든 것은 다름 아닌 마구간오르골이었습니다. 소년이 오르골 문을 닫자 끼이익 태엽 감기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유리알처럼 고운 소리로 캐럴이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와 더불어 서서히 마구간 문이 열리고 아기예수님 가족이 모습



을 드러냈습니다. 화면을 지켜보던 선물들은 멋진 광경에 하나같이 탄성을 올렸습니다. 청각 장애를 가진 화면 속 소년은 비록 음악을 들을 수 없었지만 오르골의 예쁜 모습만으로도 크게 만족한 듯 끄덕끄덕 곱슬머리를 찰랑대었습니다. 엄마와 소년은 값을 치르고 오르골을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소년은 작은 쪽지에 사과의 메시지를 꺾꾹 눌러 써내려갔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담아 정성들여 쓴 쪽지를 여러 번 접어 마구간 문 안쪽 틈에 끼워 넣은 뒤 비로소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소년이 집을 비운 사이, 엄마는 책상 위 마구간오르골 문이 잘 닫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문틈에 끼워진 쪽지에 대해 전혀 몰랐던 엄마는 고장 난 줄로만 알고 가게로 갖고 와 반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화면이 끝나고 색색전구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가게 안 선물들은 오르골을 위로해주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역시 삐꾸기시계 아저씨였습니다.

“삐꾸. 정말 아름다운 연주 실력을 가졌군 그래. 감동적이고도 안타까운 장면이었네. 삐꾸.”

반쯤된 물건이라며 쏘아붙였던 털장갑도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말해서 미안해. 너는 정말 멋쟁이 선물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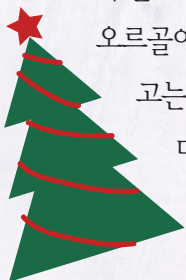
불량품 어찌고 했던 별무늬 목도리도 거들었습니다.

“너는 절대 불량품이 아니야. 지금 네 안에는 친구를 향한 사랑과 화해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 있는 걸?”

가게 안 선물들은 너도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구간오르골은 어두운 낮빛을 조금 이나마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곱슬머리 소년이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엄마 대신 주근깨 소녀와 함께였습니다. 마지못해 따라온 게 분명한 소녀는 개운치 않은 표정을 아직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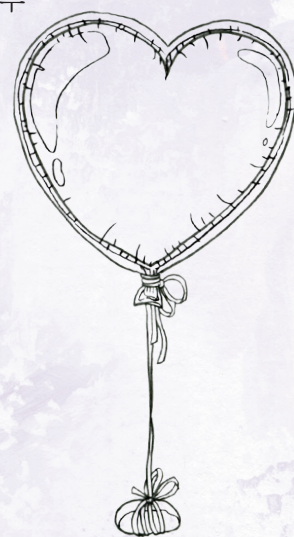
오르골이 다른 곳으로 팔려가지 않은 것을 확인한 곱슬머리 소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꼬깃꼬깃 모아두었던 용돈을 꺼내 값을 치르고 오르골을 되샀습니다. 그리고는 마구간 문틈에 끼워두었던 쪽지를 꺼내 주근깨 소녀에게 오르골과 함께 내밀었습니다.





니다. 소녀 눈이 화등잔 만해졌습니다. 소녀가 쪽지를 읽는 동안 소년은 달아오른 얼굴로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잠시만 고개를 들었다면 쪽지를 읽는 소녀의 눈이 내내 반짝이는 것을, 그래서 눈 밑 주근깨들이 마치 아침 햇살 아래 부서지는 물비를 처럼 일렁이는 것을 발견했을 텐데 말입니다.

쪽지를 다 읽은 주근깨 소녀는 곱슬머리 소년을 향해 무언가 수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소년의 얼굴 역시 햇살이라도 머금은 양 환해졌습니다. 두 아이는 마구간오르골 문을 함께 닫았습니다. 끼이익. 태양 감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내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면서 작고 예쁜 아기 예수님 모습이 유리알같이 고운 캐럴과 더불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곱슬머리와 주근깨는 서로 마주보며 눈처럼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었습니다. 두 아이만 들을 수 있는 영롱한 캐럴이 마음속에 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구간오르골을 들고 다정하게 돌아가는 두 아이 뒷모습을 향해 가게 안 모든 선물들은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때마침 정각이 되어 삐꾸기시계 아저씨가 삐꾸기를 내보내 삐꾸삐꾸 축복해 주었습니다. 트리 위 색색전구도 반짝반짝 빛을 흔들어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제 이를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본문말씀

■ 에베소서 2:13~14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제가 담긴 동화

사랑팬시점 - 2화 마구간오르골

주 제

예수님은 화해자로 이 땅에 오셨다. 죄로 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고 사랑을 잃고 다투는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화평케 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가 대림절에 기다리는 아기 예수님은 분열과 다툼을 물리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줄 거 리

크리스마스를 사흘 앞둔 사랑팬시점. ‘멋쟁이 선물 콘테스트’ 첫 날이다. 후보로 추천받은 몇몇 선물들의 장기자랑과 과거 영상에 한껏 무르익어가던 분위기는 한 선물이 마구간 모양 오르골을 후보로 추천하면서 묘하게 가라앉는다. 이유인즉슨 한번 팔려나갔다가 반품되어 돌아온 불량품이라는 것. 실제로 오르골은 마구간 문에 연결된 태엽이 작동하지 않아 음악을 연주하지 못해 탈락 위기에 처한다. 하지만 색색전구의 도움으로 숨겨진 사연이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다. 서로 다투는 두 아이 중 한 명이 사과와 화해의 메시지를 마구간 문틈에 끼워 선물하려고 했고 그 쪽지 때문에 태엽이 작동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튿날 다시 찾아온 두 친구는 오르골 속 쪽지를 통해 서로 화해하게 되고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랑팬시점 선물들은 한껏 파사로운 미소를 보낸다.

| 1단계 | 설교 본문에 대한 연구와 묵상

1. 본문의 내용과 문맥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화해와 평화의 사역이었다. 일차적으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 되었다는, 구원에 대한 통상적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 하지만 본문이 포함된 2장 전체의 흐름이 이방인의 구원 문제인 것을 감안하면, 하나님의 구원계획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것으로 간주되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의 동참자로 가까워졌음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보인다. 예수님은 실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해묵은 적대감을 무너뜨리시고 이들 모두를 자기 백성으로 다 품어 안으신 화평의 주님이시다.

2.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14절)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이 구역보다 성소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다. 몇몇 주석가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허신 담이 이 이방인의 구역과 유대인의 구역을 나누는 경계선을 뜻한다고 보기도 한다.

| 2단계 | 도입의 여러 가지 방법

* 소품을 통한 도입

손에 쥘 정도 크기의 십자가를 준비한 다음 두 어린이가 양쪽 끝을 잡게 한다. 십자가 형태가 마치 양쪽에 손을 내미는 것 같음에 착안하여 예수님은 둘 사이를 연결시켜 하나가 되게 해 주는 분임을 이야기해준다.

| 3단계 | 동화의 전개

동화를 읽는다.

| 4단계 | 동화와 설교의 연결 고리

대림절과 성탄절은 연말 분위기와 맞물려 들뜰 수밖에 없다. 화려한 조명과 재미있는 이벤트의 홍수 속에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의미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 마치 사랑팬시점의 선물들이 마구간오르골 안에 있는 화해의 쪽지를 알아채지 못한 것처럼 말이다.

동화 속 마구간오르골은 언어장애를 가진 두 친구 사이 화해의 매개체다. 마구간 문이 열리며 아기예수님 모습이 드러날 때 그 안에 숨겨진 사랑과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도 밝히 드러나는 것이다. 일반적인 언어에 어려움을 겪는 두 친구가 그 언어를 뛰어넘는 더 큰 사랑의 언어로 한 마음을 이루는 이야기를 통해 아기 예수님은 서로를 향해 닫힌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임을 전달하도록 한다. 육체적으로 들을 수 없는 두 아이가 음악이 연주되는 오르골을 선물로 선택한 것 역시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둘만의 음악이 사랑의 공명을 통해 서로의 마음에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미움과 다툼이 만연한 이 땅에 진실한 화해의 메시지가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 퍼져나가도록 하자는 것이 이 동화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이다.

성탄 초



오늘 밤도 사랑팬시점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몽실몽실 떠다닙니다. 레고로 만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캐럴에 맞춰 엉덩이춤을 추었고 봉에 걸린 사슴뿔머리띠도 리듬에 맞춰 달각달각 들썩였습니다. 바야흐로 멧쟁이 선물 콘테스트 두 번째 날 밤입니다. 뼈꾸기에게 아저씨가 시작을 알리자마자 포인세티아 화분이 기다렸다는 듯 빨간 이파리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록 이파리로 옆 친구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자, 여기 제 옆에 성탄초가 있어요. 품위 있게 희고 나무 그루터기처럼 든든한데다 향기롭기까지 하답니다. ‘아기 예수 탄생하셨습니다!’라는 문구가 아름다운 글씨체로 새겨진 이 성탄초야말로 멧쟁이 선물로 손색없을 거예요.”

성탄 초는 추천 받을 걸 예상하지 못했는지 우물쭈물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떡하죠? 저는 특별히 보여드릴 장기가 없어요. 심지에 불을 붙여 밝히는 재주 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모습을 기대했던 선물들 얼굴에 살짝 실망하는 빛이 어렸습니다. 그러자 색색전구가 또다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산대 위 모니터가 푸른빛으로 일렁이며 켜졌습니다. 오~ 옆에 놓인 스피커도 따라 켜지는 걸 보니 이번에는 소리까지 들릴 모양입니다. 선물들 시선이 모니터로 모아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소담한 양초공방입니다. 솜씨 좋은 엄마와 딸이 아기자기 예쁜 양초들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한쪽에는 아직 뜯지 않는 심지 상자들이 쌓여있고 그 옆으로는 예쁜 틀 그릇이며 도안지 같은 것들이 출동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니만큼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터. 불 앞에서 왁스를 녹이는 엄마의 콧등에는 한겨울임에도 땀이 송송 맺혔습니다. 작업대 앞에서는 스무 살 남짓 된 딸이 긴 머리를 야무지게 말아 올린 채 양초 겉면에 들어갈 그림과 글자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밀랍이며 물감 같은 것들이 훈장처럼 덕지덕지 묻은 앞치마는 등 뒤로 질끈 동여맸습니다. 뭐가 못마땅한지 엄마가 슬슬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애, 그래도 캘리그라피(주: 손 글씨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는 유행이 좀 지나지 않았니? 나는 초에 글씨 써넣는 게 영 별로던데 말이다.”

“아이 참, 엄마도. 글씨에 유행이 어디 있어?”

“어머, 애 좀 봐. 글씨에 유행이 왜 없니? 컴퓨터 글씨체만 해도 몇 년 새 확확 바뀌는 데...”

“...”

“그리고 애,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초에 써넣는 글 좀 바꾸면 안 되겠니? 요즘 누가 ‘축 성탄’ 같은 게 써진 초를 사겠어? 그리고 ‘아기 예수’라는 표현도 너무 직접적인 것 같아. 선물가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오는 것도 아닌데...”

“그럼 뭐라고 써?”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잘 안 쓰려고 한다더라. 그냥 미국식으로 ‘해피 홀리데이’ 어때? 뭔가 있어 보이고 연말 분위기도 더 나고 말이야.”

“하지만...”

“글 말고 그림을 더 많이 넣자. 연인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게 예쁜 하트도 그리고 눈 내리는 풍경도 넣고 말이야. 콜라병 들고 있는 북극곰은 어떠니? 산타클로스랑 루돌프도... 아니, 그러고 보니 너는 어떻게 성탄 초 장식을 하면서 산타 그림 하나를 안 그려 넣니? 크리스마스는 뭐니 뭐니 해도 산타인데 말이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시지. 산타가 아니라.”

“내 딸이지만 너도 참 딱 막혀서 큰일이다. 아니 요즘 세상에... 아유, 관두자, 관





뒤. 차라리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낫지. 엄마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부지런히 일하고 있어. 알았지?”

“...”

엄마가 나간 뒤 딸은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도안지를 갖다 놓고 한참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스락바스락 도안지를 만지작대던 딸은 불안한 두 손을 모으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아, 하나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때였습니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도안지가 팔랑팔랑 흔들리더니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그림이 홀로그램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의 기도는 이어졌습니다.

“...이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꼭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 위해 오신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한쪽 구석에 놓인 상자 뚜껑을 비집고 새하얀 심지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심지들은 날씬한 몸을 활처럼 구부려 하늘의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딸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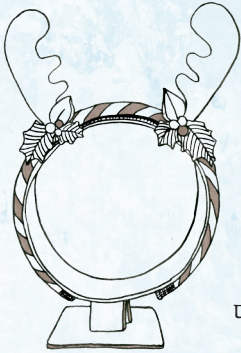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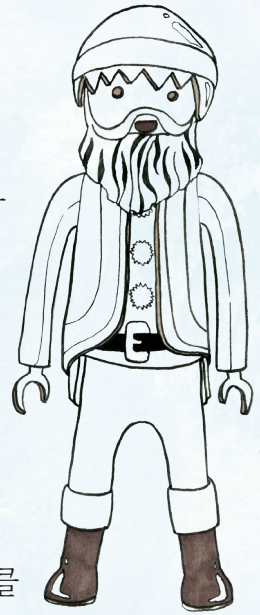
“...하얀 겨울 풍경, 예쁜 하트 무늬, 썰매와 굴뚝과 털양말, 흰 북극곰과 콜라도 좋지만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이 날의 주인공이신 것을 저는 알아요....”

엄마가 녹여둔 왁스가 조물조물 뭉쳐지더니 새하얀 북극곰이 되어 토실토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딸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이번 성탄절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 마음은 또 얼마나 슬프세요...”

틀 그릇과 물감들도 일어나 경배했습니다. 탁자 아래 쌓여 있던 양초들도 몸을 부르르 떨며 속으로 아멘을 외쳤습니다. 탁자도 찬양했습니다. 의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붓도 솔도 가위도 포장지도 함께 했습니다. 모두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딸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 제가 만드는 성탄 초에 불을 밝히는 사람들 모두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 주





세요. 성탄절의 참 주인공을 가슴에 새기게 해 주세요.”
 기도를 끝낸 딸이 눈을 떴을 때 공방 안 모든 것들은 제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딸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붓 끝에 예쁜 마음을 듬뿍
 먹여 한 글자 한 글자 써나갔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하셨네!’
 성탄 초는 딸의 손에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모니터와 스피커에 불이 꺼지고 색색전구도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사랑팬시점 안 모든
 선물들도 양초공방 재료들처럼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잔잔한 감동이 가게 안
 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성탄 초 영상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오늘 밤 추천받은 선물들은 장기자랑 대신 저마다
 자기가 아는 진짜 성탄절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트리 꼭대기에
 걸린 은별은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 인도했던 신비로운 별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
 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이 적힌 유리액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밤, 들판에서 양
 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동방박사 그림 성탄카드가
 세 가지 예물 이야기를 했을 때는 몇몇 선물들이 킁킁 웃기도 했습니다. 복슬복슬 털양
 말이 ‘그 세 가지 예물이 우리 가게에 없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해. 그들이 있었다면 몇
 쟁이 선물 콘테스트는 해 보나 마나였을 테니까.’ 라는 썰렁한 농담을 던졌기 때문이었습
 니다. 음료 진열장 속 북극곰 그려진 콜라는 처음 듣는 성탄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고 감
 동적이어서 부르르 거품까지 일으켰습니다.



색색전구가 성탄 초 머리에 전구 하나를 갖다 대고
 파팻 불을 켜줍니다. 예쁜 전구 불빛을 머리에 인 성
 탄 초를 배경으로 선물들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합창했습니다.

사거리에 밤은 깊어갔지만 사랑팬시점 안은 아름다운
 빛으로 일렁였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이 누
 구인지 모두 다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예요

본문말씀

■ 마태복음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제가 담긴 동화

사랑팬시점 - 3화 성탄 초

주 제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교회력 절기이다. 하지만 오늘날은 주인공 예수님보다 성탄절을 매개로 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를 즐기려는 풍조가 훨씬 강한 것이 사실이다. 예수님보다 주목받는 캐릭터들과 성탄예배보다 이목을 끄는 이벤트 홍수 속에서 성도들은 아기 예수 탄생이라는 성탄절 본연의 의미를 회복하려 노력해야 한다.

줄 거 리

멋쟁이 선물 후보로 추천 받은 성탄 초에는 ‘아기 예수 탄생하셨네!’라는 진부한 문구가 적혀 있다. 장기자랑에 내놓을 특별한 개인기조차 없다. 하지만 색색진구에 의해 그가 만들어진 과정이 모니터에 펼쳐지자 이야기는 달라진다. 성탄 초를 만든 곳은 엄마와 딸이 함께 운영하는 작은 양초 공방. 엄마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초 장식하기를 원하지만 순박한 신앙을 가진 딸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성탄 메시지를 초에 넣기 원한다. 딸이 이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동안 공방 안 모든 양초 재료들이 일어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감동적인 모습이 펼쳐진다. 모니터를 통해 이 광경을 본 가게 안 선물들도 이 날 만큼은 성탄절 본연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따뜻한 밤이 깊어간다.

설교 디자인하기

| 1단계 | 설교 본문에 대한 연구와 묵상

1. 본문의 내용과 문맥은 무엇인가?

결혼 전 잉태한 정혼녀 마리아 문제로 고민에 빠져있던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전해주신 말씀이다. 주의 사자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 할 것이라고 전해 주었다.

2.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를 헬라어로 표기한 것이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에 해당하는 이름이다.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는 뜻으로 본문에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풀이해주고 있다.

| 2단계 | 도입의 여러 가지 방법

* 질문을 통한 도입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묻는다. 어떤 어린이들은 아기 예수님, 마구간, 동방박사 등을 이야기하겠지만 꽤 많은 어린이들이 산타클로스나 루돌프, 선물 같은 것들을 들 것이다. 어린이들이 대답한 여러 크리스마스 이미지들 중에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보자는 말로 설교를 시작할 수 있다.

* 사진을 통한 도입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트리, 루돌프, 별, 동방박사, 마구간의 아기예수님, 눈 쌓인 굴뚝, 선물 상자 등의 사진을 차례로 보여주며 이 중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들을 투표로 뽑아본 다음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물으며 설교를 시작할 수 있다.

| 3단계 | 동화의 전개

동화를 읽는다.

| 4단계 | 동화와 설교의 연결 고리

성탄절은 부활절과 더불어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지만 부활절과 달리 교회 밖 사람들까지 즐기는 시즌이다. 교회 밖 크리스마스는 화려하고 떠들썩한 연말 분위기와 맞물려 어린이들 눈과 귀를 달콤하게 사로잡기 때문에 정작 초라한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동화는 성탄 초를 매개로 성탄절 주인공이 뒤바뀐 현 시대를 풍자한다. 초는 어린이들이 매력을 느낄 아이템이 아니다. 초에 새겨지는 캘리그래피 글씨도 마찬가지다. 어린이들은 흰곰이 그려진 콜라나 산타클로스 장난감이나 털양말에 가득한 선물을 더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어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성탄절의 참 메시지도 기쁨의 이유이다. 동화 속에서 딸에게 핀잔을 주는 엄마의 말처럼 세상은 마구간에 태어난 한 아기 이야기가 구리고 촌스럽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화려한 세상 조명이 비추지 않는 바로 그 이야기말로 이 시즌의 진짜 주인공이다.

기도로 성탄 초를 만드는 딸의 모습과 그 딸의 기도에 호응하며 함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양초 재료들의 모습을 통해 성탄절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이 동화가 창작된 이유다.

초코케이크



사랑팬시점은 오늘 평소보다 두 시간도 더 늦게 문을 닫았습니다. 주인아줌마는 빠꾸기 시계 두 바늘이 숫자 12에 겹쳐지고 나서야 문을 나섰습니다. 그 탓에, 올해 마지막 멋쟁이선물 콘테스트 역시 자정을 넘겨 시작되었습니다.

그나마 사랑팬시점은 사거리 가게 중 영업을 일찍 끝낸 축에 속했습니다. 대목을 맞은 다른 상가들은 밤이라도 썰 기세로 여전히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흥겨운 마법에라도 걸린 듯 복숭아처럼 발그레한 얼굴을 한 몇 무리의 사람들이 가게 앞을 연이어 지나갔습니다. 깔깔대는 웃음소리, 흥얼대는 노랫소리, 길 건너편 친구를 부르는 소리, 수줍게 속도 맞춰 걷는 연인들의 톡톡또각 발소리. 네. 그렇습니다. 자정을 넘겼으니 오늘은 기다리던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빠꾸!”

빠꾸기시계 아저씨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저씨!”

복치는 소년이 동동 복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가게 안 선물들은 서로 정답게 성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멋쟁이 선물 콘테스트 마지막 날 순서를 진행하겠네. 뽀꾸.”

뽀꾸기시계 아저씨의 힘찬 목소리에 선물들은 한껏 붐 뜬 목소리로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우승자가 결정되는 마지막 날이니만큼 우승 상품을 먼저 발표하겠네. 뽀꾸.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올해도 콘테스트 우승자에게는 ‘멋쟁이 선물’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와 더불어 ‘한 시간 동안 다른 선물 중처럼 부리기 쿠폰’ 열 장이 주어진다네. 뽀꾸.”

“와! 와! 와!”

선물들의 환호와 박수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역대 우승자인 특수연발폭죽, 닥종이 산타클로스, 눈사람 전구는 모두 이 쿠폰들로 여러 날 왕 대접 받으며 지낸 바 있지. 올해도 그런 행운을 거머쥔 우승자가 나올 것을 기대하며 후보 추천을 받겠네. 뽀꾸.”

진열장 맨 아래 꼬마전구세트가 기다렸다는 듯 외쳤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온 선물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온 선물이라고 했나? 뽀꾸.”

“네. 냉장 진열장에 있는 초코케이크입니다. 케이크도 먹음직스럽지만 그 위에 장식되어 있는 초콜릿 천사 장식이 끝내주거든요. 맹세코 저렇게 아름다운 초콜릿 장식을 이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 정말 환상적인 초콜릿 천사 장식이에요.”

별무늬 목도리도 신나게 맞장구쳤습니다. 모든 선물들 눈길이 냉장 진열장 속 초코 케이크로 쏠렸습니다. 가게 여기저기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걸? 케이크는 평범한데 그 위에 놓인 초콜릿천사는 절대 평범하지 않아.”

“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 양증맞은 날개하며 나팔 든 한손을 입에 갖다 댄 포즈하며... 금방이라도 아름다운 연주를 하며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지 않아?”

“그뿐이야? 곱슬곱슬한 머릿결과 흘러내리는 천의 질감 표현한 건 또 어땠고.





이건 거의 예술작품이잖아?”

천사 장식 초코케이크는 단번에 모든 선물들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더 이상 심사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터져 나오는 칭찬 세례에도 초콜릿 천사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고 있던 나팔로 조용한 캐럴 한 곡을 구슬프게 불었을 따름이었습니다.

이제 색색전구가 움직일 차례가 되었습니다. 모니터에 떠오르기 시작한 영상은 광활한 초원과 초콜릿처럼 얼굴 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기 아프리카 아냐?”

그랬습니다. 화면에는 아프리카 어느 농장에서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특유의 풍경은 가슴 뛰게 멋졌지만 보면 볼수록 조금 이상했습니다. 피약별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열 살 갓 넘은 아이들이었던 것입니다. 화면 속 아이들은 낡은 옷만 걸친 채 손발이 부르르도록 일을 하고 있었고 챙 넓은 모자를 쓴 어른들이 무서운 표정으로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건 꿈도 꾸지 못하는 아이들이죠. 나쁜 어른들 손에 팔려 와서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하지만 정당한 품삯은 남의 얘기에요. 저런 아이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 곳이 바로 제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초콜릿 천사가 낮고 우울한 목소리로 설명하자 선물들은 모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팔꼭질 비슷한 삐걱 소리만 간간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영상 속 아이들은 열매를 따기 위해 키 큰 카카오나무에 안전 장비 없이 올라가기도 하고 손톱이 까지도록 껍질을 벗기기도 했습니다. 초콜릿 천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떤 농장에서는 하루에 무려 스무 시간이나 일을 시킨대요. 맨발로 자갈밭을 육 킬로미터나 걸어서 출근한 아이들인데 말이에요.”

가게 안 선물들은 영상이 끝나고도 한참동안이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초콜릿 천사가 말했습니다.

“저를 후보로 추천해 준 꼬마전구와 별무늬 목도리에게는 많이 미안하지만 보시다시피 전 우승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제가 가진 달콤한 맛과 아름다운 외





모는 아이들의 씩씩한 아픔과 상처 속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니 부디 저를 멧쟁이 선물로 뽑지 말아주세요. 대신 저를 볼 때마다 제 몸의 빛깔처럼 검은 눈물을 흘리며 사는 불쌍한 어린이들을 떠올려 주세요.”

올해 사랑팬시점의 멧쟁이 선물은 성탄 초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성탄 초는 ‘한 시간 동안 다른 친구 종처럼 부리기 쿠폰’ 열 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이를 종처럼 부리는 일은 옳지 않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인아줌마는 달력에 빨간 글씨로 표시된 휴일인데도 굳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선물 가게는 크리스마스에 장사가 제일 잘 되니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낮에 뒤늦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엄마 손을 잡고 가게에 들어온 한 아이가, 그러니까 꼭 카카오 농장에서 껍질을 까던 아이들과 같은 또래로 보이는 한 아이가, 한참을 망설인 끝에 천사 장식 초코케이크를 샀습니다. 그 아이는 케이크 상자를 가슴에 꼭 품어두고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일 년 중에 크리스마스가 제일 좋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니까 말이야. 크리스마스에 슬프거나 불행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걸?”

딸랑딸랑. 가게 문에 달린 방울 소리만 꼬리처럼 남기고 아이가 사라졌을 때, 사거리 선물가게 사랑팬시점 안에 남은 선물 친구들은 왠지 모를 저릿함으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색색전구가 참기 힘들다는 듯 먼저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선물들도 잇따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는 막 가게 문을 나선 아이가 품은 상자 속에서도 들렸고 까마득히 떨어진 아프리카에서도 들렸고 저 멀리 베들레헴에서도 들렸고, 그리고... 저 높은 하늘에서도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주 저릿한 그런 한숨 소리가 말입니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본문말씀

■ 누가복음 4:18~19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제가 담긴 동화

사랑팬시점 - 4화 초코케이크

주 제

홍청망청 들뜬 성탄절은 연말연시 분위기에는 맞을지 몰라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러 내려오신 겸손의 왕을 드러내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다. 본 설교는 어린이들에게 고난과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 이미지를 제시하고자 지어졌다.

줄 거 리

멋쟁이 선물 콘테스트 마지막 날. 천사 장식 초코케이크는 아름답고 탐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선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부상한다. 하지만 케이크 위에 장식된 초콜릿 천사는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를 재배하는 농장에서 착취 받고 학대당하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수상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 어린이들이 가볍게 소비하는 초콜릿 이면에 숨은 비극적 현실을 드러냄으로써 예수 오심의 보다 깊고 진지한 의미를 성찰할 수 있게 이야기를 구성했다.

설교 디자인하기

| 1단계 | 설교 본문에 대한 연구와 묵상

1. 본문의 내용과 문맥은 무엇인가?

누가복음은 소외된 계층을 향한 관심이 지대한 복음서다. 다른 복음서가 예수님의 첫 메시지를 '회개하라 천국(하나님 나라)이 가까이 왔다!'로 소개한 반면(막 1:15),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과 포로 된 사람과 눈 먼 사람과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성(一聲)을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선언으로 제시한다. 이 신학적, 윤리적 주제는 누가복음 전체에 면면히 흐른다.

2. 이사야 61:1~2

본문은 구약 이사야 61:1~2의 인용이다. 예수님은 첫 회당 설교에서 이 본문을 택해 읽으심으로써 자신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다.

| 2단계 | 도입의 여러 가지 방법

* 시청각을 통한 도입

예쁘게 포장된 초콜릿을 보여주며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묻는다.

| 3단계 | 동화의 전개

동화를 읽는다.

| 4단계 | 동화와 설교의 연결 고리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다. 예수님은 양 떼의 목자들과 함께 하셨다. 황실의 비단 금침이 아니라 고난 받는 백성들 사이 악취 풍기는 곳으로 기꺼이 들어오신 것이다. 그런데 연말연시 분위기에 휩쓸린 현대 성탄절은 그런 의미를 퇴색시켰다.

동화 속 초콜릿은 잔뜩 채색되고 들뜬 현대 크리스마스 문화를 상징한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문화를 소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는 고난 받는 이웃들이 있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있다. 달콤한 초콜릿 이면에 씹쓸한 아동 착취의 현실이 있듯 말이다.

본문과 동화를 통해 우리 어린이들에게 성탄절은 그저 흥청망청 놀거나 소비하는 시즌이 아니라 고난 받는 이웃 속으로 솔선하여 내려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함께 눈물 흘려줄 이웃을 찾는 교회 절기임을 잘 가르쳐야 할 것이다.

설교가 끝난 후 초콜릿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고 고난 받는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